



## 새 천년 시대와 기독교 문화

- 박영배 편저, 김영사, 1998 -

신명균

이 책의 발간 배경은 한성신학대학 학장을 역임했던 박영배 박사의 교수직 은퇴를 기념으로 동료와 후학들이 글을 모아 묶은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실린 글들은 비교적 그의 동료들의 지적 반경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몇 편의 논문이 기독교 문화에 시사하는 바가 그간에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어 왔던 문화의 한 축을 잘 지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들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전체적으로 이 책이 가진 중요한 성격부터 규명해 보고자 한다. 기독교 문화에 대한 신학적 틀은 굳이 리차드 니버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적어도 네 다섯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구분들은 매우 복잡한 신학 논쟁이 제기되기 때문에 각각 그 요점만을 들기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그래서 아주 불성사나운 구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현실인 것만은 사실에 기에, 우리 신학을 자유주의 신학과 보수주의 신학으로 나누어 보자면 첫째로 이 책은 자유주의적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 우리

시대의 기독교 문화에 대한 논의와 인식의 지평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균형있는 책읽기의 과제가 필요할 때 바로 이 책이 그 역할을 해 주리라 본다.

둘째로 이 책이 지닌 특징이라면 필자의 대부분이 비교적 신학계의 중진 이상이라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 보수 내지는 진보적인 신학 쪽에서 기독교 문화를 논할 때 세대적인 구분만으로는 단연 신진 학자들이 주류였다고 말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춰 볼 때 신학의 경향에 이어 세대간의 경향에 대한 이해의 진폭도 가름해 줄 수 있는 면이 있다. 특히 90년에 들어와 활발히 논의돼 왔던 기독교 문화는 다분히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적인 측면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다. 약간의 이념적 논쟁의 배후에서 서 있는 문화논의의 한 축을 들여다보는 것은 한 세기를 접고 새로운 세기에 들어서는 전환기에 시의적절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에는 세 파트로 나뉘어져 5편씩 모두 15편의 소논문이 실려 있다. 1부는 기독교 문화로 제목을 정하고, 2부는 새 천년 시대와 신학의 흐름을 다루는 반면, 3부는 기독교와 세계라는 제목이 걸려 있다. 필자들은 박영배, 김문환, 장영목, 박한진, 이반, 김광식, 이계준, 손승희, 박근원, 장기홍, 권규식, 손규태, 김상일, 이화수 등 이름만으로도 신학적인 경향을 읽어볼 수 있는 분들의 글모음이다. 우선 글들을 간략히 개괄한 후 뒷부분에서 전체적인 평을 달까 한다.

이 글모음의 성격을 잘 대변해 주는 글은 유동식이 쓴 서론이다. 그는 “새 천년 시대와 한국 기독교 문화의 과제”라는 제하에서 먼저 서구 기독교와 현대라는 시대를 진단하고 있다. 특히 문화와 종교를 비

교하면서 “종교는 문화의 실체가 되는 것이며, 문화는 종교의 형상”이라고 정의내린 글의 초두가 인상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서구문화의 실체이며 서구문화는 기독교의 형상”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그 예로 서구사상은 두 기초가 되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만나서 융합된 것으로 보고 헤브라이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헬라적인 로고스로 재해석하는 과정이 바로 기독교라는 문화가 서구문화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아울러 르네상스라는 역사적 사건을 로고스, 즉 이성의 해방운동으로 규정하고 그러한 조류 속에 현대사상이 포함되고 있음이 바로 서구 기독교문화가 당면한 위기라고 진단하고 있다. 유동식이 결론으로 맺고 있는 주장은 동양의 종교문화의 실체인 ‘도’(道)와의 만남을 추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로고스라는 서구사상의 실체를 히브리적 사유로 재해석하여 서구 기독교 문화가 발전한 것처럼 동양사상의 실체인 도를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문화의 풍류를 도로 인식하면서, 풍류도의 역사적 현현이 우리 기독교 문화의 실현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다름아닌 풍류객인 것이다. 그에게 있어 멋이란 모든 비진리를 극복할 수 있는 초월적인 실재와 같아서 멋의 회복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의 문화적 사명은 바로 이 멋의 회복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그는 지난 97년에 『풍류도와 한국의 종교사상』이라는 저서를 출간함으로써 그간의 논설을 이미 정리한 바 있다.

1부 ‘기독교와 문화’라는 파트에 실린 5편의 글들은 문화이론이 특히 예술의 장르에 적용되는 측면에서 쓰여진 글들이다. 여기서는 한

편 한 편을 더듬어 볼 여유는 없겠고 비교적 이슈가 제기된 주요 글만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그리스도와 문화예술”이라는 글에서 박영배는 성서라는 텍스트와 콘텍스트인 문화를 종교적 체험과 예술적 감수성에서 살펴보고 있다. 토인비가 지적한 바 있는 현존하는 다섯 가지 문명을 거론하면서 종교 사상을 모태로 하는 문화와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즉 토인비의 5대 문명권은 서방교회인 로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문명, 동방교회인 비잔틴 문명과 동방정교회 문명, 중동의 이슬람 문명, 인도의 힌두 문명, 공맹의 유교 문명을 말한다. 이는 이 책에 수록된, 김문환이 쓴 “미래 문화선교의 기본방향”의 글에서도 지적됐던 사무엘 헌팅턴의 소위 7개 ‘문명의 충돌’과 일부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문화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던 이유를 두 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는 문화는 인간이 성취한 산물이기에 절대화될 수 없다는 것과, 둘째로는 문화가 가진 속성이 어디까지나 인간의 번영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인간구원과는 무관한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박영배는 이제까지 기독교 역사는 문화주의와의 이런 이상화 우려를 배제하고자 하는 투쟁의 연속이었다고 말하고, 리차드 니버와 폴 텔리히의 견해를 빌어 기독교 문화의 성격과 방향을 논하고 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니버가 제시했던 그리스도와 문화의 다섯 가지 유형(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 Christ against Culture, 문화의 그리스도 Christ of Culture,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 Christ above Culture, 문화와 역설적인 관계 속의 그리스도 Christ and Culture in paradox, 문화의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 Christ the Transformer of

Culture)은 너무 도식화돼 있어 정교한 문화이론을 논하기에는 부적절하지만, 복잡한 신학적 틀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해줌으로써 특히 개혁주의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박영배는 니버의 주장을,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만 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님도 되시기 때문에 인간이 이룩해 놓은 문화도 결국 하나님 나라의 범주 안에 있는 셈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이어서 텔리히의 ‘문화 신학’을 역사의 세 가지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화, 즉 신율적 문화(Theonomous Culture), 타율적 문화(Heteronomous Culture), 자율적 문화(Autonomous Culture) 등으로 소개하고 있다. 사실 텔리히의 집요한 의도는 현대의 자율문화가 실현되는 새로운 실재론의 추구였지 기독교 문화이론 정립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의 문화신학은 기독교 문화를 자처하는 서구문화의 기만성과 문화 속에 깃든 인간의 죄성을 구원코자 모든 문화현상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주장은 앞서 언급했던 니버의 문화 도식에 포함되지 않는 또 하나의 유형인 셈으로 종교와 문화는 결코 나눌 수 없는 불가 분리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문화에 대한 박영배의 입장은 적극적인 자세로 세속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문화 생산에 참여하고 아울러 감시할 뿐 아니라 예언자적 역할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와 문화를 거의 동일시하는 것이다. 특히 그는 종교적 체험과 예술적 감수성이 동시에 드러나는 가치체계에서 기독교 문화의 성격과 방향이 설정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 나라의 상황과 동시대성을 구체화시키는 예술 구조 속에서 기독교 체험이 우리의 문화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결론으로 그가 제시한 기독교 문화 예술의 지향점인 ‘폭로적 표

현', '구현', '천직 의식', '축제'는 '계시', '창조', '예언자적 책무', '창조의 선택'과 유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기독교 문화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미래지향적 사명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어서 실린 글들은 이 시대의 문화 속의 영상예술(김문환), 교회음악(장영목), 미술(박한진), 연극(이반) 등 장르별로 기독교 예술의 논의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흥미롭게 개진하고 있다.

2부의 글들은 주로 전환기적 신학의 흐름을 짚어내는 주제들로서 21세기 신학(김광식)과 선교(이계준), 교육(손승희), 예배의 갱신(박근원) 등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글은 지질학 교수인 장기홍이 쓴 "현대 문명의 이상과 기독교문화의 이념"인데, 과학자다운 시각으로 우리 사회가 가진 현대문명의 이상화와 사상의 부패한 모순을 지적하면서 올바른 '종교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과학과 종교는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하면서도 소위 창조과학은 사이비성 과학이라 비판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이 문명시대에 무속도 아닌 '고등종교'마저도 우민화된 신앙교육으로 사이비 종교화되고 있고 미신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가 본 현대문명이란 '잘못되는 사람'이라는 서양 격언처럼 길을 잘못 들어 위기에 처한 것이다. 즉 실낙원으로 추락된 인간에게 문명의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 문화의 역할은 기독교의 본질은 지키면서도 현대문명과 조화를 이루는 일이라 한다. 기독교와 현대문명을 제대로 소화시켜 탈이 나지 않게 하는 그의 처방은 다름 아닌 "설화와 신화들을 인류학적으로 이해시켜 과학과 함께 몸과 마음에서 저절로 이해" 되도록 하는 소위 '두 문화의 융합'이라는 것이다. 이어 이런 문화 융합이 잘된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는 게 바로 새 문화창조라고 선언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어딘지 설익은 논리의 괴리감이 적지 않다. 글의 흐름에서 종교와 문화의 기능이나 현대문명의 세속적 지향점에 대해서는 공감되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아로서의 기독교를 극복하고 보다 초월적인 ‘큰 기독교’로의 진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크리스찬 초인(超人)이 “기독교와 과학을 그리고 타종교를 함께 수용 통합”해야 기독교를 지킬 수 있다는 결론에서는 그가 말했던 ‘창조과학의 사이비성’ 만큼이나 한 과학자의 사이비적 기독교 문화관을 엿보게 한다.

3부의 글들은 우리 사회의 (정치적) 상황과 현실에 대한 실천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문화의 상대주의와 다원주의가 세계인의 상호이해와 세계평화에도 기여한다는 손규태의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 우리말 ‘한’에 대한 한철학을 과정철학과 접목시키면서 우리의 신관은 하트손의 범재신론(panentheism)은 동일한 것이라는 김상일의 글, 정치문화의 발전 논리로 우리의 민주문화를 생태중심적 생명권 정치문화를 제시한 이화수와, 참여 신학자로서의 장공 김재준의 간략한 신학 평전을 쓴 박영배의 글들이 있다. 그 외에 “세속화 이론의 흐름과 과제”(권규식)에서는 한국과 영국의 종교적 상황을 진단하면서 세속화 이론의 개괄을 짚으면서 월슨의 종교쇠퇴론과 루크만의 세속화 현상을 다루고, 결론으로 한국의 종교적 상황은 이들 서구 학자들의 이론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종교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의 모델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면서 ‘합리적 선택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흥미로운 주제를 아쉽게도 본론에서 장황하게 서구이론을 개괄만 하다가 우리 사회의 종교적 상황에

대한 통찰과 분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세속화 이론의 새로운 과제를 학계에 제시했다고 보기보다는 한마디 던져봤다는 인상에 머물고 만다.

이상으로 살펴본 글들의 저변 논제들은 실은 신학 서클에서 월간 『기독교사상』이나 한국신학연구소의 출판물들 가운데서 꾸준히 개진해 온 것들이다. 그런 맥락에서 정대위가 쓴 『그리스도교와 동양인의 세계』와 유동식교회논총 『한국종교와 한국신학』를 묶어서 읽어보는 것도 좋으리라 본다.

아무튼 『새 천년시대와 기독교문화』는 편저자의 은퇴기념논총이라는 제한성 때문에 제목만큼 ‘새천년’의 의미 부여, 과제와 대안이 충분히 담기지는 못했으나 비교적 우리 신학계의 한 축을 대변한다는 의미에서 일별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정리된 바탕에서 진일보된 논의가 가능하겠다는 효용성도 있다. 특히 70-8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 신학의 토착화에 관심을 갖고 민중신학 운동에 참여했거나 그들의 뒤를 잇는 학자들과의 조우를 통해 주로 90년대에 이르러 소장학자들이 주도했던 기독교 세계관 운동과 통합논의를 새롭게 돌아볼 기회도 되었으면 한다.